

효성-코오롱 카프로 경영다툼 재발?

16년만에 2333만주 유상증자 결의 ... 1996년 경영권 분쟁 때와 비슷

국내 화학섬유업계의 라이벌 효성과 코오롱이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Caprolactam) 생산기업인 카프로의 유상증자를 놓고 앞으로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카프로의 각각 1대, 2대 주주로서 1996년 경영권을 놓고 일대 격돌을 벌였던 효성과 코오롱이 1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카프로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확대를 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프로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7월12-13일을 청약일로 2333만주(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은 20%로 예비발행가가 820원이며 총 발행금액은 191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프로는 자금조달을 통해 카프로락탐 제2차 증설사업의 일부 시설자금 충당 및 2003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꾀하게 된다.

증권가는 현재 카프로의 지분을 각각 20.38%(339만6750주), 19.24%(320만6790주) 보유해 1대, 2대 주주인 효성과 코오롱이 청약을 놓고 보여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988년 12월 이후 16년만의 첫 유상증자로 인해 두 대주주의 지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996년 경영권을 놓고 벌였던 일대 격전을 떠올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프로는 카프로락탐 국내수요의 42%인 11만8185톤(2003년 기준)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요처는 효성, 코오롱, KP케미칼 등이다.

1969년 12월 설립된 카프로는 1974년 민영화 과정에서 효성(당시 동양나일론 20.03%), 코오롱(19.2%), 고려합섬(7.4%) 등 3사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1996년 2월 효성이 임직원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해 실제 지분이 57.6%에 이른다고 코오롱이 폭로하면서 카프로(당시 한국카프로락탐)의 경영권 분쟁이 촉발돼 법정공방까지 벌인 끝에 대표이사들의 합의 아래 현재까지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지분에도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2004년 7월 유상증자가 효성과 코오롱의 지분경쟁에 이어 카프로의 제2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800억원을 투입해 2002년 시작한 제2차 증설사업의 필요성을 놓고도 당시 대주주들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두 대주주가 6월14일 신주배정 기준일을 앞두고 카프로의 주식 매집에 나설 개연성과 함께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으로 청약일까지 신주인수권 확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프로의 5% 이상 주요 주주 원혁희 9.74%(162만4500주), 고희합 7.44%(124만주)의 행보와 청약 후 실권주의 처리 결과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4>